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묘지로 본 인구(人口)의 변화

정 상 수* · 방 선 지**

- I. 서 론
- II.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유적
- III. 주거지로 본 인구(人口)
 - 1. 주거지의 노지(墟址) 수와 바닥 면적으로 본 인구
 - 2. 유적별 인구의 변화 양상
 - 3. 유적별 주거지와 묘지 검토
- IV. 인구에 대한 고찰
- V. 결 론

국문초록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을 크게 6개의 군집으로 나누었으며, 주거지의 노지와 바닥 면적을 이용하여 각 시기별로 거주자 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를 가지고 각 시대별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1개 주거지를 1가구로 볼 때 각 시대별 가구 구성원수 그리고 묘지와 가구·인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경산지역에서 초기와 후기 등 문화가 변동될 때 인구수가 가장

* (재)다운문화재연구원 / jssmih@hanmail.net

**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sunji8487@naver.com

작았으며, 묘지수는 1기이거나 없었다. 반면 전기와 중기 등 안정적인 시기에는 인구가 늘어났으며, 특히 현재까지 발굴조사 결과 중기에는 약 2,500명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1가구 구성원은 문화변동이 있던 시기(조기와 후기)는 높은 편이지만, 안정적인 시기(전기와 중기)는 낮은 편에 속한다. 안정적인 시기에도 가장 인구가 많았던 곳(중서군)은 가구구성원이 많은 편에 속하며, 종합하여 볼 때 가구를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북서군은 안정적인 시기(중기)에 인구가 다른 곳보다 줄어들었으나 묘지는 늘어났다. 이는 인구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혼인이나 이주 등에 제약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주거지와 묘지를 통해 본 경산지역 청동기시대는 분절사회로 짐작된다.

◆ 주제어

경산지역, 주거지, 묘지, 연평균 인구증가율, 가구(家口)

I. 서 론

우리나라 고고학에서 청동기시대 연구는 지식묘·석관(곽)묘의 구조와 변화¹⁾· 의례²⁾· 주거지의 구조와 변화³⁾· 물질문화⁴⁾· 농경⁵⁾ 등이 있다.

- 1) 윤호필, 「青銅器時代 墓域支石墓에 관한 研究」, 『경남연구』1, 경남발전연구원, 2009, 1~20쪽.
윤호필, 「청동기시대 지식묘의 축조배경과 상징성」, 『韓國青銅器學報』21, 한국청동기학회, 2017a, 80~106쪽.
朴榮九, 「東海岸地域 青銅器時代 무덤의 變遷」, 『韓國青銅器學報』9, 한국청동기학회, 2011, 62~64쪽.
김광명, 「청동기시대 묘제」, 『금호강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학연문화사, 2015, 135~193쪽.
신영애, 「청동기시대 무덤 연구성과 검토」,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학연문화사, 2016, 498~517쪽.
이성주, 「경북지역의 청동기시대 분묘와 부장품」,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학연문화사, 2016, 483~497쪽.
조미애,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배치양상」,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학연문화사, 2016, 518~536쪽.
- 2) 김권구, 「의례와 사회」,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4. 분묘와 의례』, 서경문화사, 2017, 179~196쪽.
윤호필, 「지식묘의 장송 의례」,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4. 분묘와 의례』, 서경문화사, 2017b, 128~152쪽.
이영문, 「분묘와 사회」,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4. 분묘와 의례』, 서경문화사, 2017, 9~15쪽.
- 3) 김권구·공민규,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3. 취락』, 서경문화사, 2014.
유병록, 「대구지역 신천일대의 주거와 취락」, 『영남문화재연구원』28, 영남문화재연구원, 2015, 22~52쪽.
유지환, 「대구 진천천일대 청동기시대 취락의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78, 한국상고사학회, 2012, 7~21쪽.
이수경, 「청동기시대 주거 변화에 대한 연구」, 『영남문화재연구원』28, 영남문화재연구원, 2015, 137~170쪽.
하진호, 「청동기시대 촌락의 형성과 발전」, 『금호강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학연문화사, 2015, 47~133쪽.
- 4) 손준호, 「石器 組成比를 통해 본 靑銅器時代 生計와 社會經濟」, 『韓國青銅器學報』3, 한국청동기학회, 2008, 36~61쪽.
이석범, 「磨製石鏃을 통한 嶺南地域住居址의 編年」, 『韓國青銅器學報』10, 한국청동

이들 연구는 청동기시대 사회·문화 해석에 일조하였으며, 청동기 사회가 어떤 체계에 살았는지 알려준다. 그렇지만 당시 살았던 사람의 수, 즉 인구(人口)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굴조사된 유적의 보고서⁶⁾를 기초자료로 하여 청동기시대 인구수와 연평균 증가율 등을 알아보고, 그 결과로 청동기시대 사회 체계를 찾고자 한다. 이와 함께 연구대상 지역과 시기설정 그리고 인구수와 연평균 인구증가율 등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산(慶山)에 대한 지역⁷⁾ 범위이다. 경산지역에 대해서는 이희준이

기획회, 2012, 22~60쪽.

강봉원, 「한반도 청동기시대 마제석촉의 무기적 기능에 관한 역사·고고학적 고찰」, 『선사와 고대』38, 한국고대학회, 2013, 89~118쪽.

황창한,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석제무기」, 『韓國青銅器學報』13, 한국청동기학회, 2013, 87~108쪽.

손준호, 「도구의 사용과 생계」, 『청동기시대의고고학 5. 도구론』, 서경문화사, 2014, 177~191쪽.

유병록, 「석기의 종류와 특징」,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5. 도구론』, 서경문화사, 2014, 65~82쪽.

이청규, 「청동기와 사회」,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5. 도구론』, 서경문화사, 2014, 192~209쪽.

천선행, 「토기의 종류와 특징」,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5. 도구론』, 서경문화사, 2014, 17~40쪽.

김병섭, 「영남지역」,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편년』, 서경문화사, 2016, 212~238쪽.

방선지, 「경북지역의 청동기시대 무덤 부장유물 연구」,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학연문화사, 2016, 537~555쪽.

이형원, 「남한지역 병행관계」,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편년』, 서경문화사, 2016, 239~264쪽.

5) 김권구,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농경사회』, 학연문화사, 2005.

안승모·이준경, 「DNA분석을 통해 본 구대륙의 곡물과 가축의 기원」, 『선사농경 연구의 새로운 동향』, 사회평론, 2009, 98~143쪽.

6) 2017년까지 간행되어 배포된 보고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7년 간행되었어도 배포가 늦은 경우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 본고에서 지역이란 이희준의 지역(地域)·지방(地方)·지구(地區)·지점(地點) 등의 개념을 인용한다.

이희준, 「대구 지역 古代 政治體의 형성과 변천」, 『영남고고학』26, 영남고고학회, 2000, 79쪽.

언급⁸⁾된 바가 있지만, 본고에서 경산이란 법률 제3424호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1981년 4월 13일)」에 따라 지금의 대구광역시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당시 경상북도 경산군 안심읍·고산면 일원을 포함하는 지금의 경산시를 공간범위로 한다.

다음으로 청동기시대의 시기이다. 시기 구분은 유적의 유구 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가지고 설정하는데, 초기·전기·중기·후기로 구분하였다.⁹⁾ 초기는 B.C.15세기에서 B.C.13세기까지, 전기는 B.C.12세기에서 B.C.10세기까지, 중기는 B.C.9세기에서 B.C.7세기까지, 후기는 B.C.6세기에서 B.C.4세기까지의 기간으로 구분하였다. 초기·전기·중기·후기 각각 300년 정도로 나눌 수 있다.<도면 1> 참조

마지막으로 본고의 방법론은 인구수의 추정¹⁰⁾과 연평균인구증가율이다.

인구수의 추정은 주거지 내에서 관찰된 노지(爐址)의 수와 바닥 면적을 이용하여 인구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1개 노지가 있는 주거지는 3~5명이 관

이희준, 「경산 지역 고대 정치체의 성립과 변천」, 『영남고고학』34, 영남고고학회, 2004, 6쪽.

8) 이희준, 앞의 논문(2004), 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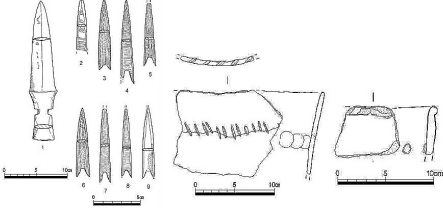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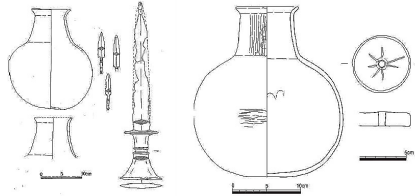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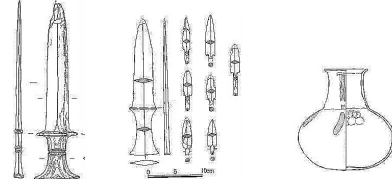

9) 안재호 외,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편년』, 서경문화사, 2016, 33~36, 246~247쪽. 김권구, 「청동기시대 시지지역의 마을과 무덤」, 『고대 마을, 시지』, 국립대구박물관, 2016, 322~329쪽. 본고에 있는 유적에 대한 편년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시기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기준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10) 인구수의 추정은 주거지 면적, 노지 수, 조리용구의 총용량을 개인 취사도구의 용량으로 나누는 방법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노지수와 주거지 면적으로 인구수를 추정한다. 주거지의 면적 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인디언 연구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만든 방법론이다.

Hassan, Fekri. A., *Demographic Archaeology,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1., 1978, 55~58쪽.

배기동 역, 『고고학이론 입문』, 학연문화사, 1991, 53~54쪽.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112~118쪽. 이 논고에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1인당 3㎡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거주자 수를 추정하였다. 1인당 3㎡가 나온 근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 방법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본고는 Hassan, 배기동 등이 소개한 방법을 이용한다.

시기	출토유물	
1	 <p data-bbox="241 538 683 565">신서B7-1 석관묘 신서B6-5 주거지 옥곡동III-71</p>	<p data-bbox="726 350 943 520">유구병식석검, 삼각만입석촉,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단사선문, 단사선문</p>
2	 <p data-bbox="241 811 665 871">시지동지석묘군 1-3 지석묘 경리 주거지 1</p>	<p data-bbox="726 572 943 888">이단병식석검, 일단병식석검, 일단경식석촉, 석도, 석부, 단도마연토기, 호형토기, 구순각목문, 공열문, 구순각목단사선문, 단도마연토기 등</p>
3	 <p data-bbox="241 1093 683 1152">옥곡동 석관묘 6 매호동지석묘군 석관묘 1 신서B6-2 석관묘</p>	<p data-bbox="726 913 943 1161">이단병식석검, 유절식석검, 일단병식석검, 반월형석도, 석부, 공열문, 구순각목문, 단도마연토기 등</p>
4	 <p data-bbox="373 1400 568 1426">하양 동강리 A-3 주거지</p>	<p data-bbox="726 1238 943 1340">두형토기 대각, 원형 점토대기편, 석도, 석부 등</p>

<도면 1> 경산지역 청동기 시기 편년 기준 (축척부동)

련된 것으로 보고, 주거지 면적(m²)을 10으로 나누어 나오는 숫자가 거주자의 수이다.¹¹⁾ 주거지 면적은 구체적으로 6명에게는 각각 2.32m², 그 다음에는 1인당 9.29m²를 할당하는 주거지에 거주한 사람 수를 파악하였다.¹²⁾ 이를 이용하여 주거지에서 노출된 노지(爐址)와 주거지의 바닥 면적으로 거주자의 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유적별로 시기별로 정리하여 거주자 즉 각 유적의 인구(人口)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연평균 인구증가율 그리고 주거지와 묘지 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평균 인구증가율의 공식은 $k = \ln(N/N_0)/t$ 이다. 이 공식에서 k는 연평균인구증가율, N₀는 비교 기준 시기의 인구수, N는 비교대상 시기의 인구수, t는 N과 N₀ 사이의 시간, ln은 계산방법과 규칙의 기호¹³⁾이다. 이 계산식으로 계상해서 나온 값은 1년에 1,000명당 인구 증가율(혹은 감소율)을 의미한다.¹⁴⁾ 계산식에 대입하여 계상을 할 때 수치 등을 삽입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방법을 통해 나온 결과는 청동기시대 인구수와 어느 유적이 경산지역의 중심지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사회 체계, 즉 어떤 단계의 사회인지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부터 경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에 대해 보면 다음과 같다.

11) 배기동 역, 앞의 책, 1991, 53~54쪽.

12) Hassan, Fekri. A., 앞의 논문, 1978, 56쪽.

배기동 역, 앞의 책, 1991, 54쪽.

이희준 옮김, 『현대 고고학의 이해』, (주)사회평론, 2006, 461쪽.에는 2인에 9.3m²라고 하였는데, Hassan과 배기동은 1인당 9.29m²로 되어 있어 1인으로 기술(記述)한다.

13) ln는 자연로그 ln을 말하는 것으로 log라는 기호를 간단하게 유리수로 쓰기 힘든 지수를 표현하는 만들어진 기호이다.

14) 강봉원, 「인구압력과 전쟁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신라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21, 2003, 3~11쪽.

강봉원, 「인구압력과 전쟁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신라를 중심으로-」, 『한국 고고학의 일 방향』, 학연문화사, 2008, 213~225쪽.

Hassan, 앞의 논문, 1978, 70~71쪽.

Chamberlain, Andrew., *Demography in Archaeology*, Cambridge Manuals in Archa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19~23쪽.

II.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유적

경산지역에서 발굴조사된 후 보고서가 발간된 청동기시대 유적¹⁵⁾은 총 35개소인데, 주거지 유적은 29개소, 묘지 유적은 15개소이다. 이 중 묘지만 있는 유적은 6개소이며, 묘지와 주거지가 복합된 유적은 총 9개소이다. 이를 주거지와 묘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데 주거지는 총 522기, 묘지는 151기이다. 각 유적의 유구별 세부 내용과 자세한 현황은 각 유적의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이 2002년에 음양리유적(34)¹⁶⁾·2005년에 대학리(2)와 동강리 유적(3), 2007년에 신한리 취락유적(1), 2009년에 산양리유적(30), 2011년에 신서혁신도시유적(6), 2012년에 각산동유적(5·35) 등을 간행하였다.

삼한문화재연구원이 2012년에 가야리376-1번지유적(12), 경리440-5번지유적(31)을 발간하였으며, 성림문화재연구원이 2011년에 중산동160-1번지유적(21)을,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1999년에 매호동지석묘유적(17)·시지동유적(18)·신매동유적(19)·시지지구생활유적(22)과 2004년에 괴전동유적(9)·옥수동생활유적(25)을 조사·보고하였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02년에 동내동유적(8), 2003년에 삼성동665번지유적(33), 2004년에 가천동유적(14), 시지동60-1번지유적(15), 옥수동128번지유적(24), 옥수동134번지유적(23)을, 2005년에 가야리유적(11), 마곡리유적(13), 삼성리유적(32), 2006년에 사월리400번지유적(20), 2009년에 매호동1008번지유적(16), 2011년에 서부리451번지유적(29), 옥산동300번지유적(26)을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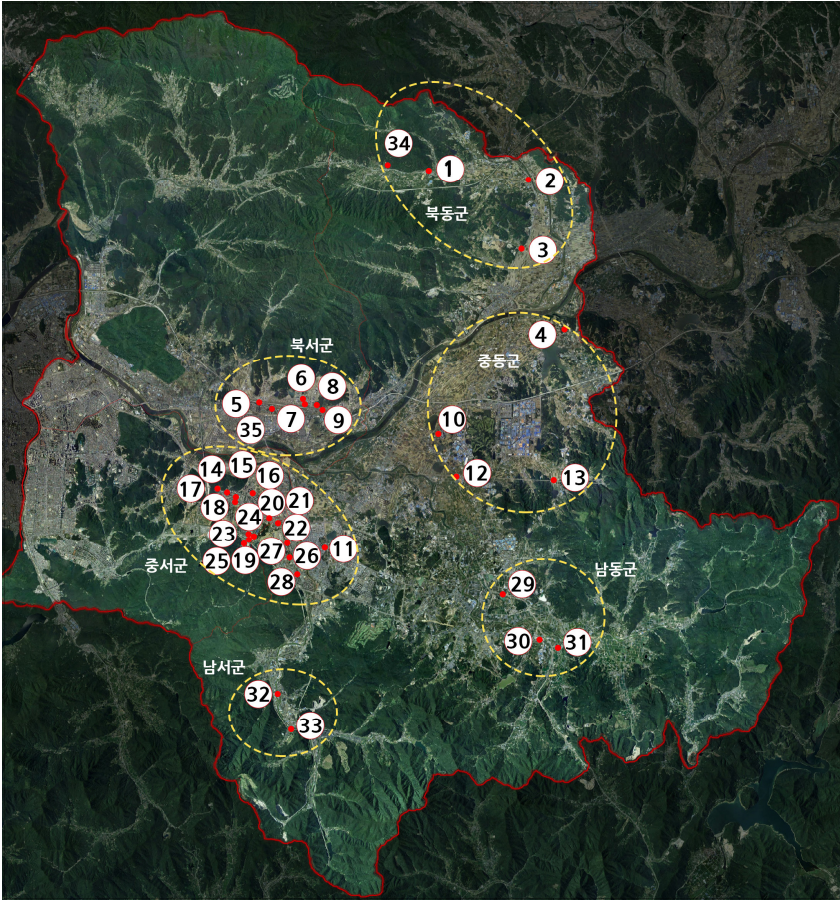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2008년에 옥산동29번지유적(27), 2009년에 옥곡동

15) 2017년 12월까지 수집된 발굴조사 보고서를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참고문헌의 발굴조사보고서 참조.

16) ()의 번호는 [표 1]과 [표 2]의 유적번호이다. 이하 모두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였다. 보고서는 참고문헌에 있어서 유적별 주(註)를 기술하지 않는다.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묘지로 본 인구(人口)의 변화(정상수·방선지)

유적(28), 2012년에 신서동유적(7), 2016년에 마곡리유적(10) 등을, 한빛문
화재연구원이 2011년에 내리리유적(4)을 정리·보고하였다.



<그림 1>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유적 위치도
(축척부동; 번호는 <표 1>·<표 2>의 유적번호이다)

〈표 1〉 유적별 주거지 현황

(유적 시기의 1:조기, 2:전기, 3:중기, 4:후기, 0: 시기 모름. 이하 동일)

유적 번호	유 적 명	유구수	유적의 시기별 유구수				
			1	2	3	4	0
1	신한리 취락유적	21	-	1	20	-	-
2	동강리유적	4	-	-	3	1	-
3	대학리유적	1	-	-	1	-	-
4	내리리유적	13	-	4	9	-	-
5	각산동혁신도시유적	1	-	-	1	-	-
6	신서혁신도시유적	1	-	-	1	-	-
7	신서동유적	66	2	23	16	-	25
8	동내동유적	3	-	2	-	-	1
9	과전동유적	1	-	-	-	-	1
10	선화리1111번지유적	6	-	-	6	-	-
11	가아리유적	2	-	-	2	-	-
13	마곡리유적	1	-	-	1	-	-
14	가천동유적	2	-	-	-	-	2
15	시지동60-1번지유적	2	-	-	2	-	-
18	시지동유적	3	-	1	1	1	-
20	사월동400번지유적	1	-	-	1	-	-
21	중산동160-1번지유적	2	-	1	1	-	-
22	시지지구생활유적	3	-	-	2	-	1
24	옥수동128번지유적	3	-	3	-	-	-
25	옥수동생활유적	1	-	1	-	-	-
26	옥산동300번지유적	44	2	-	42	-	-
27	옥산동29번지유적	1	-	1	-	-	-
28	옥곡동유적	276	2	27	221	2	24
29	서부리451번지유적	4	-	-	4	-	-
30	산양리유적	24	-	-	24	-	-
31	경리440-5번지유적	5	-	5	-	-	-
33	삼성리665번지유적	5	-	2	3	-	-
34	음양리유적	2	-	-	2	-	-
35	각산동유적	24	1	8	11	2	2
합 계		522	7	79	374	6	56

<표 2> 유적별 묘지 현황 (면적 계상이 가능한 유구 수는 ()에 표기하였다)

유적 번호	유 적 명	유구 수	유적의 시기별 유구수			
			1	2	3	0
4	내리리유적	1(1)	-	-	-	1(1)
6	신서혁신도시유적	1(1)	-	1(1)	-	-
7	신서동유적 (상석; 5기)	83 (64)	1 (1)	2(2)	17 (12)	63 (49)
8	동내동유적 (상석; 1기)	4(3)	-	3(3)	-	1
12	가야리376-1번지유적	1	-	-	-	1
16	매호동1008번지유적	2(2)	-	-	-	2(2)
17	매호동지석묘유적 (상석; 10기)	15 (15)	-	3(3)	4(4)	8(8)
18	시지동유적 (상석; 4기)	21 (20)	-	6(6)	6(5)	9(9)
19	신매동유적	1(1)	-	1(1)	-	-
23	옥수동134번지유적	4(4)	-	-	1(1)	3(3)
26	옥산동300번지유적	1(1)	-	1(1)	-	-
28	옥곡동유적 (상석; 1기)	10 (6)	-	2(1)	3(2)	5(3)
30	산양리유적	1(1)	-	1(1)	-	-
31	경리440-5번지유적	2(2)	-	-	-	2(2)
32	삼성리유적 (상석; 3기)	4(3)	-	1(1)	1(1)	2(1)
합	계 (상석; 24기)	151 (124)	1(1)	21 (20)	32 (25)	97 (78)

이들 유적 중 주거지와 묘지 그리고 상석에 대해 정리하면 <표 1>·<표 2>와 같다.

<표 1>과 <표2>의 시기 구분 1은 청동기시대 초기를, 2는 청동기시대 전기
기를, 3은 청동기시대 중기를, 4는 청동기시대 후기를, 0은 같은 유적에서
나온 유구이나 시기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들 유적 분포 상황은 <그림 1>과 같으며, 크게 6개로 군집을 묶을 수
있다. 경산지역을 남북(南北)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누고 동서(東西)로 2개 구
역으로 구분한다. 북동군(北東群)은 신한리취락유적(1)·동강리유적(2)·대학
리유적(3)·음양리유적(34)으로 4개 유적이고, 북서군(北西群)은 각산동혁신
도시유적(5)·신서혁신도시유적(6)·신서동유적(7)·동내동유적(8)·괴전동유
적(9)·각산동유적(35) 등으로 6개 유적이다. 중동군(中東群)은 내리리유적
(4)·선화리1111번지유적(10)·가야리376-1번지유적(12)·마곡리유적(13)
등 4개 유적이며, 중서군(中西群)은 가야리유적(11)·가천동유적(14)·시지
동60-1번지유적(15)·매호동1008번지유적(16)·매호동지석묘군(17)·시지
동유적(18)·신매동유적(19)·사월동400번지유적(20)·중산동160-1번지유
적(21)·시지지구생활유적(22)·옥수동134번지유적(23)·옥수동128번지유적
(24)·옥수동생활유적(25)·옥산동300번지유적(26)·옥산동유적(27)·옥곡
동유적(28) 등 16개 유적이다. 남동군(南東群)은 서부리451번지유적(29)·산
양리유적(30)·경리455번지(31)로 3개 유적이며, 남서군(南西群)은 삼성리유
적(32)·삼성리665번지유적(33)으로 2개 유적이다.

Ⅲ. 주거지로 본 인구(人口)

경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35곳이며, 주거지 522기와 묘지 151기,
상석 24기를 가지고 논의하고자 한다.

1. 주거지의 노지(爐址) 수와 바닥 면적으로 본 인구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묘지로 본 인구(人口)의 변화(정상수·방선지)

각 유적에서 나온 주거지의 시기별 출토 노지를 통해 최소 거주자와 최대 거주자를 보면 <표 3>과 같다. 모든 주거지에서 노지가 출토된 것은 아니며, 1개 주거지에서 2개 이상의 노지가 노출된 곳이 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최소 거주자와 최대 거주자의 평균(평균 거주자)의 표준편차는 각각 2.00 이하, 3.00 이하가 대부분이다. 표준편차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평균 인원

<표 3> 주거지 유적 시기별 노지로 본 거주자 수 추정

유적번호	출토유구수	시기	대상유구수	출토노지총수	최소 거주자			최대 거주자		
					평균	표준편차	총거주자	평균	표준편차	총거주자
1	21	2	0/1	-	-	-	-	-	-	-
		3	5/20	5	3.00	-	60.00	5.00	-	100.00
2	4	3	3/3	4	4.00	1.41	12.00	6.67	2.36	20.01
		4	0/1	-	-	-	-	-	-	-
3	1	3	1/1	1	3.00	-	3.00	5.00	-	5.00
4	13	2	3/4	3	3.00	-	12.00	5.00	-	20.00
		3	7/9	9	3.86	1.36	34.74	6.43	2.26	57.87
5	1	3	1/1	1	3.00	-	3.00	5.00	-	5.00
6	1	3	1/1	1	3.00	-	3.00	5.00	-	5.00
7	66	1	2/2	3	4.50	1.50	9.00	7.50	2.50	15.00
		2	11/23	14	3.82	1.34	87.86	6.36	2.23	146.28
		3	9/16	11	3.67	1.25	58.72	6.11	2.08	97.76
		0	5/25	6	3.60	1.20	90.00	6.00	2.00	150.00
8	3	2	1/2	3	9.00	-	18.00	15.00	-	30.00
		0	0/1	-	-	-	-	-	-	-
9	1	0	0/1	-	-	-	-	-	-	
10	6	3	1/6	1	3.00	-	18.00	5.00	-	30.00
11	2	3	2/2	2	3.00	-	6.00	5.00	-	10.00
13	1	3	1/1	1	3.00	-	3.00	5.00	-	5.00
14	2	0	0/2	-	-	-	-	-	-	-
15	2	3	2/2	2	3.00	-	6.00	5.00	-	10.00
18	3	2	1/1	1	3.00	-	3.00	5.00	-	5.00
		3	1/1	1	3.00	-	3.00	5.00	-	5.00
		4	1/1	1	3.00	-	3.00	5.00	-	5.00

20	1	3	0/1	-	-	-	-	-	-	-
21	2	2	1/1	3	9.00	-	9.00	15.00	-	15.00
		3	1/1	1	3.00	-	3.00	5.00	-	5.00
22	3	3	1/2	1	3.00	-	6.00	5.00	-	10.00
		0	0/1	-	-	-	-	-	-	-
24	3	2	1/3	1	3.00	-	9.00	5.00	-	15.00
25	1	2	0/1	-	-	-	-	-	-	-
26	44	1	2/2	4	6.00	3.00	12.00	10.00	5.00	20.00
		3	30/42	45	4.50	1.86	189.0	7.50	3.10	315.0
27	1	2	1/1	1	3.00	-	3.00	5.00	-	5.00
28	276	1	2/2	2	3.00	-	6.00	5.00	-	10.00
		2	21/27	42	6.00	4.72	162.0	10.00	7.87	270.0
		3	109/221	146	4.02	1.73	888.42	6.70	2.89	1,480.7
		4	1/2	2	6.00	-	12.00	10.00	-	20.00
		0	3/24	3	3.00	-	72.00	5.00	-	120.00
29	4	3	2/4	1	3.00	-	12.00	5.00	-	20.00
30	24	3	17/24	20	3.53	1.54	84.72	5.88	2.56	141.12
31	5	2	2/5	2	3.00	-	15.00	5.00	-	25.00
33	5	2	1/2	1	3.00	-	6.00	5.00	-	10.00
		3	0/3	-	-	-	-	-	-	-
34	2	3	0/2	-	-	-	-	-	-	-
35	24	1	1/1	2	6.00	-	6.00	10.00	-	10.00
		2	4/8	7	5.25	1.30	42.00	8.75	2.17	70.00
		3	7/11	8	3.43	1.05	37.71	5.71	1.75	62.86
		4	0/2	-	-	-	-	-	-	-
		0	0/2	-	-	-	-	-	-	-

이 안정적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다만 옥곡동유적(28)의 전기(2)¹⁷⁾에 해당하는 유구 중 옥곡동Ⅲ-A 39호에서 총 8기의 노지가 노출되었지만 면적으로 보아 노지를 2기로 계상(計上)하면 전기(2)는 최소 거주자 수가 평균 5.25인, 표준편차가 2.49이고, 최대 거주자 수가 평균 8.75인, 표준편차가 4.15가 된다. 그러나 보고서에 노지가 8개로 되어 있어 이에 노지 8개로 논의코자 한다.

17) 시기 뒤에 ()로 표기된 수는 [표 1]과 [표 2]에 시기를 나타낸 숫자이다. 1; 조기, 2; 전기, 3; 중기, 4; 후기, 0; 시기 모름 이다. 이하 같은 방법으로 표기(表記)한다.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묘지로 본 인구(人口)의 변화(정상수·방선지)

노지 수와 유구의 수를 이용하여 최소와 최대 거주자 평균(표준편차)을 계산하고 여기서 나온 값을 총 거주자수로 곱하여 나온 값이 총 거주자 수이다.

주거지의 바닥 면적을 가지고 거주자 수 등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를 보면 표준편차가 10.00 이상인 유적과 시기는 신서동 유적(7)의 전기

<표 4> 주거지 유적 시기별 바닥면적으로 본 거주자 수 추정

유적번호	출토유구수	시기	대상유구수	면적		거주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총 거주자
1	21	2	1/1	22.70	-	6.95	-	6.95
		3	12/20	15.66	8.93	5.42	1.76	108.40
2	4	3	3/3	13.89	1.90	5.71	0.62	17.13
		4	1/1	26.98	-	7.41	-	7.41
3	1	3	1/1	16.38	-	6.26	-	6.26
4	13	2	1/4	18.90	-	6.54	-	26.16
		3	0/9	-	-	-	-	-
5	1	3	1/1	6.78	-	2.92	-	2.92
6	1	3	1/1	14.28	-	6.04	-	6.04
7	66	1	2/2	25.98	8.38	7.30	0.90	14.60
		2	22/23	19.97	13.46	5.94	2.21	136.62
		3	13/16	13.80	4.97	5.24	1.37	83.84
		0	17/25	10.33	4.51	4.22	1.51	105.50
8	3	2	0/2	-	-	-	-	-
		0	0/1	-	-	-	-	-
9	1	0	1/1	17.56	-	6.39	-	6.39
10	6	3	2/6	6.70	1.42	2.89	0.61	17.34
11	2	3	0/2	-	-	-	-	-
13	1	3	1/1	17.15	-	6.35	-	6.35
14	2	0	0/2	-	-	-	-	-
15	2	3	1/2	13.89	2.49	5.59	0.68	11.18
18	3	2	0/1	-	-	-	-	-
		3	1/1	11.60	-	4.98	-	4.98
		4	1/1	25.00	-	7.19	-	7.19
20	1	3	0/1	-	-	-	-	-

21	2	2	0/1	-	-	-	-	-
		3	1/1	54.64	-	10.38	-	10.38
22	3	3	2/2	13.44	4.24	5.18	1.22	10.36
		0	1/1	14.70	-	6.08	-	6.08
24	3	2	3/3	13.08	3.17	5.33	1.03	15.99
25	1	2	1/1	12.09	-	5.21	-	5.21
26	44	1	2/2	37.40	9.70	8.53	1.04	16.7
		3	15/42	23.59	10.11	6.78	1.57	284.76
27	1	2	0/1	-	-	-	-	-
28	276	1	1/2	21.20	-	6.78	-	13.56
		2	23/27	33.24	21.42	7.73	2.79	208.71
		3	165/221	15.60	11.65	5.13	2.24	1,133.73
		4	2/2	23.80	11.80	6.75	1.58	13.50
		0	15/24	7.54	2.69	3.21	1.02	77.04
29	4	3	2/4	13.15	2.76	5.35	0.87	21.40
30	24	3	22/24	15.12	9.53	5.08	2.10	121.92
31	5	2	4/5	14.13	4.66	5.42	1.06	27.10
33	5	2	2/2	20.71	8.17	6.51	1.10	13.02
		3	3/3	16.73	4.33	6.09	0.73	18.27
34	2	3	0/2	-	-	-	-	-
35	24	1	1/1	29.95	-	7.73	-	7.73
		2	6/8	19.03	4.18	5.22	0.87	57.46
		3	8/11	19.51	73.43	1.05	0.72	11.55
		4	1/2	19.48	-	6.60	-	13.20
		0	1/2	11.06	-	4.77	-	9.54

(2), 옥산동 300번지 유적(26)의 중기(3), 옥곡동 유적(28)의 전기(2)·중기(3)·후기(4), 각산동유적(35)의 중기(3)이다. 이들 유적의 시기는 주거지 바닥면적 크기가 다양하며, 특히 각산동유적(35)의 중기(3)는 70이 넘어 주거지 규모 차이가 매우 크다. 그리고 표준편차 8.00이상인 경우는 신한리 취락 유적(1)의 중기(3), 신서동 유적(7)의 조기(1), 옥산동 300번지 유적(26)의 조기(1), 산양리 유적(30)의 중기(3), 삼성리 665번지 유적(33)의 전기(2)이며, 이들 유적과 이 시기의 주거지 바닥 면적이 다양하다. 그 외의 유적이나 시기는 모두 표준편차 5.00 이하로 면적 크기 분포 양상이 거의 비슷하다. 또 면적으로 본 거주자 수와 노지로 본 거주자의 최소와 최대 수와 비교하

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유적별 인구의 변화 양상

여기서는 노지와 주거지 바닥면적으로 본 거주자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3〉·〈표 4〉 참조) 각 유적들의 거주자 및 인구 변화상과 1가구 구성원¹⁸⁾에 대해 알아보면, 각 군별로 정리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북동군은 4개의 유적이며 전기(2)부터 후기(4)까지 있으나, 묘지는 없다.

신한리 유적(1)은 전기(2)의 거주자는 6.95명이지만 중기(3)가 되면 60명~108.4명으로 추정된다. 주거지수는 전기(2) 1기, 중기(3) 20기이며, 1가구 구성원수를 보면 전기(2) 가구 구성원은 6.95명이지만 중기(3)가 되면 3명~5.42명이다.

동강리유적(2)은 중기(3) 주거지 3기와 후기(4) 주거지 1기에만 거주하였으며, 거주지수는 중기(3)에 12명~20.01명이 후기(4)에 7.41명으로 줄어든다. 중기(3)의 가구 구성원은 4명~6.67명이며, 후기(4)는 7.41명이 된다.

대학리유적(3)은 중기(3) 주거지 1기만 발굴되었으며, 3명~6.26명이 거주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유적의 1가구 구성원의 수와 같다.

음양리유적(34)은 중기(3)은 주거지 2기가 있지만 노지와 주거지 바닥면적이 보고되지 않아 거주자 수를 알 수 없다.

북서군 유적은 6개의 유적이며, 시기는 초기(1)부터 후기(4)까지와 시대모름(0)이 있다. 3군데 유적에서 묘지와 주거지가 같이 관찰되었다.

각산동혁신도시유적(5)은 중기(3)에 1기의 주거지만 조사되었으며, 거주자는 2.92명~5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가구 구성원은 동일하다.

신서혁신도시유적(6)은 중기(3) 주거지만 1기가 있으며, 거주자는 3명~6.04명으로 1가구 구성원 수와 같다.

18) Chamberlain, 앞의 책, 2006, 50~52쪽. 주거지 1기를 1가구로 보고 인구의 총수(최소~최대)를 각 유적의 총 주거지 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신서동 유적(7)은 조기(1)의 주거지 2기에 거주자는 9명~15명이 되며, 4.5명~7.5명이 1가구 구성원이다. 전기(2)에는 주거지 23기에 87.86명~146.28명이며, 1가구 구성원은 3.82명~6.36명이다. 중기(3)는 주거지 16기에 58.72명~97.76명이 거주하였으며, 1가구는 3.67명~6.11명이 구성원이다. 시기 모름(0)은 주거지 25기에 90명~150명이며, 1가구 가구 구성원수는 3.6명~6명이다.

동내동유적(8)은 전기(2)에 18명~30명이 살았으며, 주거지 1기로 1가구는 9명~15명이 가구 구성원이다. 시기 모름(0)에는 주거지 1기가 노출되었지만 노지와 주거지 바닥 면적을 알 수 없어 거주자 수를 알 수 없다.

괴전동유적(9)은 시기 모름(0)에 1기의 주거지가 있으며, 6.39명이 1가구 가구 구성원으로 거주하였다.

각산동유적(35)은 조기(1)에는 주거지 1기에 6명~10명이, 전기(2)에는 주거지 8기에 42명~70명이, 중기(3)에는 주거지 11기에 37.71명~62.86명이, 후기(4)에는 주거지 2기에 13.2명이, 시기 모름(0)에는 주거지 2기에 9.54명이다. 1가구 가구 구성원은 조기(1) 6명~10명, 전기(2) 5.25명~8.75명, 중기(3) 3.43명~5.71명, 후기(4) 6.6명, 시기 모름(0) 4.77명이다.

중동군은 4개의 유적이 있으며, 3곳에서 주거지가 발굴되었다. 시기는 전기(2)에서 중기까지 이다.

내리리 유적(4)은 전기(2)의 주거지 4기에 거주자는 12명~26명 내외이지만, 중기(3)가 되면 주거지 9기로 34.74명~57.87명으로 거주자들이 늘어난다. 1가구 구성원은 전기(2)에는 3명~6.5명, 중기(3)에는 3.86명~6.43명이다.

선화리1111번지유적(10)은 중기(3)에 6기의 주거지가 있으며, 17.34명~30명이 거주하였다. 1가구 구성원은 2.89명~5명이다.

마곡리유적(13)은 중기(3)에 주거지 1개가 조사되었으며, 거주자는 6명~12.7명으로 1가구는 3명~6.35명으로 구성되었다.

중서군은 19기이며, 주거지가 있는 유적은 12곳이다. 시기는 조기(1)부터

후기(4)까지 있다.

가야리유적(11)은 중기(3)에 2기의 주거지에 6명~10명이 살았던 것으로 짐작되며, 3명~5명이 1가구 구성원이다.

가천동유적(14)는 시대 모름(0) 주거지가 2기 있으며, 노지와 주거지 바닥 면적이 없어 거주자 수를 알 수 없다.

시지동60-1번지유적(15)은 중기(3)에 2기의 주거지에 6~11.18명이 거주했으며, 1가구 가구 구성원은 3명~5.59명이다.

시지동유적(18)은 전기(2)·중기(3)·후기(4)에 각각 1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며, 전기(2)는 3명~5명, 중기(3)는 3명~5명, 후기(4)는 3명~7.19명이 거주하였다. 각 시기별 1가구 가구 구성원은 동일하다.

사월동400번지유적(20)은 중기(3)에 1기의 주거지가 있으며, 거주자는 노지와 바닥 면적이 없어 알 수 없다.

중산동160-1번지유적(21)은 주거지가 전기(2)에 1기, 중기(3)에 1개가 조사되었으며, 전기(2)는 9명~15명, 중기(3)에는 3명~10.38명으로 각 시기의 1가구 가구 구성원이다.

시지지구생활유적(22)는 중기(3)에는 2기의 주거지에 6명~10.36명이, 시기 모름(0)에는 1기에 6.08명이 거주하였다. 1가구 가구 구성원은 중기(3)에 3명~5.18명, 시기 모름(0)에 6.08명이다.

옥수동 128번지유적(24)은 전기(2)에 3기의 주거지가 있으며, 9명~15.99명이 거주하였다. 1가구 가구 구성원은 3명~5.33명이다.

옥수동생활유적(25)은 전기(2)에 1기가 노출되었으며, 5.21명이 1가구 가구 구성원으로 거주하였다.

옥산동300번지유적(26)은 초기(1)에 2기의 주거지에 12명~20명이, 중기(3)에 42기에 189명~315명이 거주하였다. 1가구 가구 구성원은 초기(1)에는 6명~10명이며, 중기(3)에는 4.5명~7.5명이다.

옥산동29번지유적(27)은 전기(2)에 주거지 1기에서 3명~5명이 1가구 가구 구성원으로 거주하였다.

옥곡동유적(28)은 조기(1)에 2기, 전기(2)에 27기, 중기(3)에 221기, 후기(4)에 2기, 시기 모름(0)이 24기가 확인되었다. 조기(1)에는 6명에서 13.56명이, 전기(2)에는 162명~270명이, 중기(3)에는 888.42명~1,480.7명이, 후기(4)에는 12명~20명이, 시기 모름(0)에는 72명~120명이 거주하였다. 1가구 가구구성원은 조기(1)는 3명~6.68명, 전기(2)6명~10명, 중기(3)에는 4.02명~6.7명, 후기(4)에는 6명~10명, 시기 모름(0)에는 3명~5명이다.

남동군은 3군데의 유적이 있으며, 전기(2)에서 중기(3)까지 이다.

서부리451번지유적((29)은 중기(3)에 주거지 4기에 12명~20명이 거주하였으며, 1가구 가구 구성원은 3명~5명이다.

산양리유적(30)은 중기(3)에 주거지 24기가 조사되었으며, 84.72명~141.12명이다. 1가구 가구 구성원은 3.53명~5.88명이다.

경리440-5번지유적(31)은 전기(2)에 5기의 주거지가 있으며, 거주자는 15명~27.1명으로 1가구 가구 구성원은 3명~5.42명이다.

남서군은 2개의 유적이 있는데 주거지 유적과 묘지 유적 각각 1개씩 있다. 전기(2)에서 중기(3)까지 유적이다.

삼성리665번지유적(33)은 전기(2)에 2기, 중기(3)에 3기의 주거지가 발굴되었으며, 전기(2)에 6명~13.02명이, 중기(3)에는 18.27명이다. 1가구 가구 구성원은 전기(2)는 3명~6.51명, 중기(3)는 6.09명이다.

3. 유적별 주거지와 묘지 검토

지금까지는 주거지 위주로 보았지만 지금부터는 묘지와 주거지를 같이 보고자 한다.

경산지역의 청동기시대 묘는 총 151기¹⁹⁾가 조사·보고되었으며, 이중 바닷면적 계상이 가능한 묘는 124기이다.(<표 2>참조) 주거지와 묘지가 같이 있는 곳은 내리리유적(4)·신서혁신도시유적(6)·신서동유적(7)·동내동유적

19) 하부구조가 있는 묘만을 말하며 지석묘의 상석 등만 있는 경우는 계상하지 않았다.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묘지로 본 인구(人口)의 변화(정상수·방선지)

(8), 시지동유적(18)·옥산동300번지유적(26)·옥곡동유적(28)·산양리유적(30)·경리440-5번지유적(31)이다. 묘지만 있는 경우는 가야리376-1번지유적(12)·매호동1008번지유적(16)·매호동지석묘유적(17)·신매동유적(19)·옥수동134번지유적(26)·삼성리유적(32) 등 6개 유적이다.<표 1>과 <표 2> 참조)

묘지와 주거지의 수로 보면 경산지역 전체의 경우 묘지수가 151개소, 주거지수가 522개소로 묘지/주거지의 비율은 28.93%이며, 시기별로 보면 조기(1)는 묘지 1기에 주거지 7기여서 14.28%, 전기(2)는 묘지 21기에 주거지 79기로 29.59%, 중기(3)는 묘지 32기에 주거지 374기로 8.56%, 후기(4)는 묘지 없음, 시기 모름(0)은 묘지 97기에 주거지 56로 173.21%이다.

<표 5> 시기별 묘지 평균 크기(유구수 중 ()수만 면적 계상 가능 유구임)

유적 번호	유구수	시기	대상 유구 수	평균면적	표준편차	주거지 평균면적	묘 / 주거지
4	1(1)	0	1	0.44	-	-	-
6	1(1)	2	1	0.43	-	-	-
7	83(64)	1	1	0.73	-	25.98	2.81
		2	2	0.45	0.18	19.97	2.25
		3	12	0.84	0.40	13.80	6.09
		0	49	0.51	0.43	10.33	4.94
8	4(3)	3	3	0.63	0.37	-	-
		0	0	-	-	-	-
12	1	0	0	-	-	-	-
16	2(2)	0	2	1.09	0.97	-	-
17	15(15)	2	3	2.00	-	-	-
		3	4	0.80	0.42	-	-
		0	8	0.56	0.70	-	-
18	21(20)	2	6	0.99	0.68	-	-
		3	5	0.47	0.25	11.60	4.05
		0	9	0.39	0.22	-	-
19	1(1)	2	1	0.87	-	-	-

23	4(4)	3	1	0.37	-	-	-
		0	3	0.19	0.09	-	-
26	1(1)	2	1	0.29	-	-	-
28	10(6)	2	1	0.42	-	33.24	1.26
		3	3	0.53	0.11	15.60	3.40
		0	3	0.38	0.18	7.54	5.04
30	1(1)	2	1	0.64	-	-	-
31	2(2)	0	2	0.51	0.26	-	-
32	4(3)	2	1	0.75	-	-	-
		3	1	0.81	-	-	-
		0	1	0.27	-	-	-

이를 앞에서 언급한 북동군·북서군·중동군·중서군·남동군·남서군으로 나누어 묘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북동군에는 묘지와 상석이 없다. 묘지와 주거지의 면적 등을 비교할 수 없다.

북서군의 묘지는 조기(1)에 1기, 전기(2)에 5기, 중기(3)에 17기, 시기 모름(0)에 63기이며, 전기(2)에 신서혁신도시유적(6)과 동내동유적(8)에 전기(2)의 묘지가 각각 1기와 3기이다. 신서동유적(7)은 묘지가 83기인데 조기(1)에 1기, 전기(2)에 2기, 중기(3)17기, 시대 모름(0)에 63기이다. 상석은 신서동유적(7)에 5기, 동내동유적(8)에 1기가 관찰되었다.

조기(1)의 묘지/주거지의 비율²⁰⁾을 보면 2.81이다. 전기(2)의 묘지는 신서혁신도시유적(6)과 신서동유적(7)의 3기이지만 신서동유적(7)만이 주거지 바닥 면적을 알 수 있어서 이 유적만 보면 2.25의 비율이다. 중기(3)의 묘지는 신서동유적(7)과 동내동유적(8)에서 총 15기이지만 신서동유적(7)에서만 주거지 바닥 면적이 있다. 이 유적은 6.09로 조기(1)와 전기(2)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묘지가 커진다. 시대 모름(0)은 신서동유적(7)과 동내동유적(8)에서 총 64기가 노출되었지만 신서동유적(7)의 49기만 바닥 면적이 산출된다. 이 비율을 같은 시기의 주거지와 비율을 보면 4.94로 중기(3)보다 작지만 조기와 전기보다 크다.

20) (묘지 평균면적 / 주거지 평균 면적)×100하여 나온 값이다. 이하 동일하다.

중동군은 내리리유적(4)과 가야리376-1번지유적(12)에 각각 1기씩 시대 모름(0)의 묘지가 있으며, 상석은 없다. 중동군 중에 묘지의 바닥 면적이 나오는 곳은 내리리유적(4)의 1기로 0.44㎡이며 주거지의 바닥 면적은 없다.

중서군은 주거지와 묘지가 같이 있는 곳은 시지동유적(18)·옥산동300번지유적(26)·옥곡동유적(28) 3곳이며, 묘지만 있는 유적은 4군데로 매호동 1008번지유적(16)·매호동지석묘유적(17)·신매동유적(19)·옥수동134번지유적(23)이다.

시지동유적(18)은 중기(3)에 묘지/주거지의 비율이 4.05이고, 옥곡동유적(28)은 전기(2) 묘지/주거지의 비율이 1.26, 중기(3)는 3.40, 시대 모름(0)은 5.04이다.

남동군은 3개의 유적으로 묘지가 조사된 곳은 2개 유적이다. 주거지 바닥 면적이 없어서 묘지/주거지의 비율은 알 수 없다.

남서군은 2개 유적으로 주거지와 묘지가 각각 1개 유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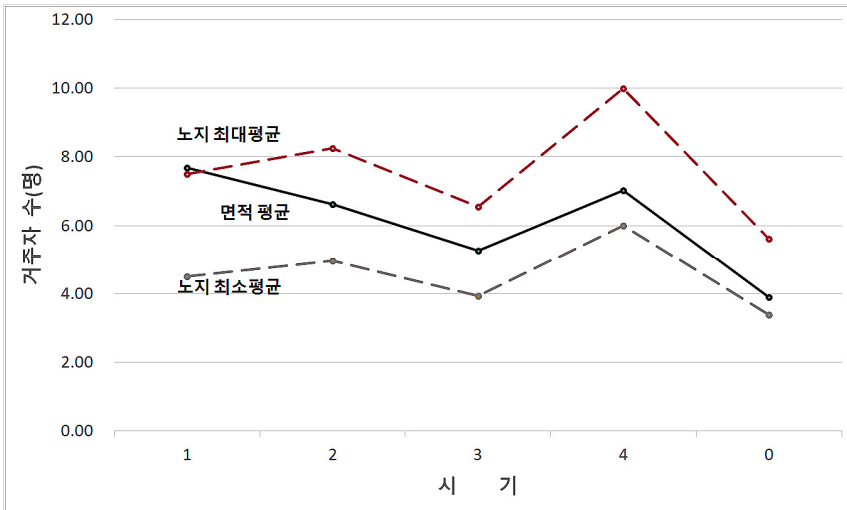
종합하여 보면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묘지의 바닥 면적은 조기(1)는 0.73㎡이다. 전기(2)는 0.29㎡~2㎡사이에서 9곳의 유적이 있으며, 평균 묘지 바닥 면적은 0.96㎡이다. 전기(2)의 0.29㎡의 묘지 바닥 면적은 옥산동300번지유적(26)이고, 2㎡의 묘지 바닥 면적은 매호동지석묘유적(17)이다. 중기(3)는 7개 유적의 묘지 바닥 면적은 0.37㎡~0.84㎡ 사이이며, 평균은 0.64㎡이다. 후기(4)는 묘지가 발견된 경우가 없다. 시대 모름(0)은 묘지 바닥 면적이 8개 유적에서 0.19㎡~1.09㎡ 사이이며, 평균 0.48㎡이다.

경산지역의 묘지 바닥 면적은 평균으로 볼 때 전기(2), 조기(1), 중기(3), 시대 모름(0) 순으로 크다. 그렇지만 묘지의 수는 조기(1) 1기, 중기(2) 21기, 중기(3) 32기, 시대 모름(0) 97기로 시대 모름, 중기, 전기, 조기 순이다.

묘지/주거지 바닥 면적의 비율을 보면 신서동유적(7)은 조기(1) 2.81, 전기(2) 2.25, 중기(3) 6.09, 시대 모름(0) 4.94이다. 시지동유적(18)은 중기(3)이 4.05이고, 옥곡동유적(28)은 중기(2) 1.26, 중기(3)은 3.4, 시대 모름(0) 5.04이다.

IV. 인구에 대한 고찰

각 시기별로 주거지로 본 최소·최대 인가와 묘지 수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²¹⁾ 시기별 인구변화 양상을 정리하면 <그래프 1>과 같다.



<그래프 1> 주거지 노지와 바다면적으로 본 시기별 거주자 수 평균

경산지역 전체를 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중기(3)에 해당되며, 가장 적은 인구가 있었던 때는 조기(1)와 후기(4)이다. 최소 인수로 보면 조기(1)이지만 최대 인수로 보면 후기(4)가 가장 적은 인구이다. 그러나 최소와 최대를 더하여 나눈 값은 조기(1) 45.78명, 후기(4) 41.71명으로 후

21) 최소와 최대 인원은 주거지의 노지와 바다 묘적으로 계상한 것 중 최소와 최대 인원을 표기하였고, 노지의 경우는 최소와 최대 인원이 나오지만 바다 면적으로 한 경우는 1개의 인원만 나오며 노지가 노출되지 않아 인원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바다 면적으로 정리하였다.

기(4)가 인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로 보면 북서군은 신서동유적(7)이, 중서군은 옥곡동유적(28)이 각각 66기와 276기로 대표적이다. 신서동유적(7)은 초기(1)~중기(3)까지 96기(시기 모름 포함)의 주거지가, 옥곡동유적(28)은 초기(1)~후기(4)까지 전 시기에 걸쳐 343기(시기 모름 포함)가 확인되었다. 북서군의 유적과 중서군의 유적이 아닌 북동군·중동군·남동군·남서군에서는 초기(1)와 후기(4)

<표 6> 주거지로 본 최소·최대 인구 및 묘지 수

(주거지 수의 ()는 거주자를 알 수 없는 주거지수)

시기	총 계			북동군			북서군(상석: 6기)		
	주거지수	최소인/최대인	묘지수	주거지수	최소인/최대인	묘지수	주거지수	최소인/최대인	묘지수
1	7	33 / 58.56	1	0	-	0	3	15 / 25	1
2	82	379.02 / 635.55	21	1	6.95	0	33	147.86 / 246.28	6
3	374(3)	1,445.92 / 2,423.91	32	26(2)	75 / 134.67	0	29	99.43 / 166.66	17
4	6	35.61 / 47.8	0	1	7.41	0	2	13.2	0
0	56(3)	184.01 / 292.01	97	0	-	0	29(1)	105.93 / 165.93	64
시기	중동군			중서군(상석: 16기)					
	주거지수	최소인/최대인	묘지수	주거지수	최소인/최대인	묘지수			
1	0	-	0	4	18 / 33.56	0			
2	4	12 / 26	0	34	193.21 / 316.2	13			
3	16	58.08 / 100.57	0	272(1)	1,101.42 / 1,842.62	14			
4	0	-	0	3	15 / 27.19	0			
0	0	-	2	27(1)	78.08 / 126.08	27			

시 기	남동군			남서군(상석; 3기)		
	주거 지수	최소인/최대인	묘지 수	주거지 수	최소인/최대인	묘지 수
1	0	-	0	0	-	0
2	5	15 / 27.1	1	2	6 / 13.02	1
3	28	96.72 / 161.12	0	3	18.27	1
4	0	-	0	0	-	0
0	0	-	2	0	-	2

유적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전기(2)~중기(3)에만 거주하였는데, 특히 중기(3)에 사람이 많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묘지는 신서동유적(7)이 83기, 옥곡동유적(28)이 10기로 신서동유적(7)이 많으며, 북서군이 88기, 중서군이 54기로 신서동유적(7)과 북서군이 많다. 북동군·중동군·남동군·남서군의 묘지는 0~4기가 조사되었다.

경산지역의 초기(1)에는 북서군과 중서군에만 사람이 살았는데, 거리가 약 6km~10km 거리를 두고 금호강의 남북에 위치하고 있다. 금호강의 지류인 남천·옥수천 등의 주변에 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중서군 유적과 달리 북서군 유적들은 중서군보다 작은 천과 개울의 주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부터 연평균 인구증가율·1가구 구성원·묘지와 가구 그리고 인구와 관련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연평균 인구증가율²²⁾을 보면 경산지역 전체의 전기(2)는 0.62~0.99명, 중기(3)는 0.27~0.62명, 후기(4)는 -1.41~-1.14명이다. 전기(2)와 중

22) $\ln(\text{시기2의 최소인구}/\text{시기1의 최대인구})/300(\text{시기간격}) \times 100$ 과 $\ln(\text{시기2의 최대인구}/\text{시기1의 최소인구})/300(\text{시기간격}) \times 100$ 에서 나온 값의 소수점 아래 3번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이렇게 나온 값이 인구 1,000명당 연평균 인구증가율의 최소값·최대값이며, 각 시기동안 1년의 증가(감)율이다(강봉원, 앞의 논문, 2003, 306~309쪽, 앞의 논문, 2008, 217~221쪽). 이 값은 해당시기의 1,000명당 1년에 증가(감)하는 평균 사람 수를 의미하며, 출산과 이주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

기(3)에는 인구가 증가한 반면, 후기(4)에는 격감한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후기(4)에는 사회에 어떤 변화가 심한 시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동군은 중기(3)에는 0.79~0.99명으로 인구가 증가했지만, 후기(4)에는 -0.77~-0.97명으로 감소한다. 이를 경산지역 전체와 비교하면 중기(3)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높고, 감소율은 낮은 편이다.

북서군은 전기(2)에는 0.59명~0.93명, 중기(3)에는 -0.30명~0.04명, 후기(4)에는 -0.67명~-0.85명이다. 전기(2)에서 중기(3)로 가면서 인구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후기(4)가 되면 감소한다.

중동군은 중기(3)에 0.27명~0.71명 늘어나며, 경산지역 전체와 비슷한 증가율이다.

중서군은 전기(2)에는 0.58명~0.96명, 중기(3)에는 0.42명~0.75명, 후기(4)에는 -1.23명~-1.60명이다. 전기(2)는 경산지역 전체 보다 조금 낮지만 중기(3)는 전체와 비교하면 조금 높아진다. 그리고 후기(4)는 인구 감소율이 경산지역 전체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다.

남동군의 중기(3)에는 0.42명~0.79명으로 경산지역 전체보다 높다. 남서군의 중기는 0.11명~0.37명으로 경산지역 전체보다 낮은 편이다.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전기(2)에서 북서군과 북동군이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지만 경산지역 전체와 비교하면 약간 낮은 편이다. 중기(3)의 경우 경산지역 전체보다 높은 곳은 북동군·남동군과 중서군 순이며, 비슷한 곳은 중동군이, 낮은 곳은 남서군과 북서군 순이다. 특히 북서군의 경우는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정도여서 다른 곳에 비해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낮아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다음으로 1개 주거지가 1가구(家口)로 볼 때 1가구 구성원을 보면 경산지역 전체의 1가구 구성원은 조기(1)에는 주거지가 7개여서 4.71명~8.39명²³⁾이며, 전기(2)는 주거지가 82개여서 4.62명~7.75명이다. 중기(3)에는 주거

23) 최소인원 또는 최대인원 / 주거지수에서 나온 값으로 소수점 아래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주거지수는 거주자를 알 수 있는 주거지 수만 가지고 계상하였다. 이하동일하다.

지가 371개여서 3.9명~6.53명, 후기(4)에는 6기로 5.94명~7.97명이다.

북동군의 전기(2)는 6.95명, 중기(3)는 주거지가 24기로 3.13명~5.61명, 후기(4)에는 7.41명이다.

북서군의 조기(1)는 3명~8.33명, 전기(2)는 4.48명~7.46명, 중기(3)는 3.43명~5.75명, 후기(4)는 6.6명이다.

중동군의 전기(2)는 3명~6.5명, 중기(3)에는 3.63명~6.29명이다.

중서군의 조기(1)는 4.5명~8.39명, 전기(2)는 5.68명~9.3명, 중기(3)는 주거지 271기로 4.06명~6.8명, 후기(4)는 3명~9.06명이다.

남동군의 전기(2)는 3명~5.42명, 중기는 3.45명~5.75명이고, 남서군의 전기(2)는 3명~6.51명, 중기(3)는 6.09명이다.

남서군은 전기(2)는 3명~6.51명이고, 중기(3)는 6.09명이다.

1가구 구성원은 후기(4)와 조기(1)가 많고, 전기(2), 중기(3) 순으로 작다. 최소구성원에서 후기(4)가 조기(1)보다 많지만 최대구성원에서 조기(1)가 후기(4)보다 많다. 평균으로 보면 조기(1) 6.55명, 후기(4) 6.97명으로 후기(4)의 가구구성원이 높다고 보인다.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가구구성원의 수로 보면 핵가족과 확대가족 모두 가능하며, 어디에 해당되는지 적확(的確)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묘지와 가구(家口)²⁴·인구(人口)를 비교하여 보면 경산지역 전체의 조기(1)에는 7가구 중 1개 가구 1인이, 33명~58.56명²⁵ 중 1인이 묘지에 매장되었다. 특히 조기(1)에는 신서동유적(7)에만 묘지 1기가 있는 것을 보면 2가구 중 1가구의 1인이, 9명~15명 중 1인이 무덤을 가졌다. 전기(2)에는 묘지 21기에 주거지 82기여서 3.9가구 중 1인이, 18.05명~30.26명 중 1인이 무덤을 조성하였다. 중기(3)에는 묘지 32기에 주거지 374기로 11.69가구 중 1인이, 45.19명~75.75명 중 1인이 무덤에 매장되었다. 후기(4)는 묘지가 조성되지 않았으며, 매장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4) 1개 주거지를 1가구로 논리(論理)를 기술한다.

25) <표 6>의 최소인~최대인을 묘지수로 나눈 값이다. 이하 동일하다.

북동군은 전기(2)와 중기(3) 그리고 후기(4)에 주거지가 조사되었지만 묘지에 대한 보고된 것이 없다.

북서군의 초기(1)는 3가구 중 1가구의 1인이, 15명~25명 중 1인이 묘지를 조성하였다. 전기(2)는 5.5가구 중 1가구의 1인이, 24.64명~41.05명 중 1인이 매장되었으며, 중기(3)는 1.71가구 중 1가구의 1인이, 5.85명~9.80명 중 1인이 묘지가 있었다. 후기(4)는 묘지가 조사된 예가 없으며, 시기 모름(0)의 64기 묘지는 계상하지 않았다. 상석도 6기가 보고되었다.

중동군은 시기 모름(2)의 묘지 2기를 제외하고는 조사된 것이 없다.

중서군의 초기(1) 주거지는 4기이지만 묘지는 없다. 전기(2)는 2.62 가구 중 1인이, 14.86명~24.32명 중 1인이 매장되었다. 중기(3)는 19.43가구 중 1인이, 78.67명~131.62명 중 1인이 매장되었으며, 후기(4)는 묘지가 없다. 시대 모름(0)의 27기 묘지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상석은 16기이다.

남동군의 전기(2)는 5가구 중 1인이, 15명~27.1명 중 1인이 묘지에 매장되었으며, 시기 모름(0)의 묘지 2기는 계상하지 않았다.

남서군의 전기(2)는 2가구 중 1인이, 6명~13.02명 중 1인이 묘지를 가졌으며, 중기(3)는 3가구 중 1인이, 18.27명 중 1인이 매장되었다. 후기(4)는 묘지가 없으며, 시대 모름(0)의 묘지 2기는 계상하지 않았다. 상석 3기가 보고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경산지역 전체 청동기시대 발굴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결과이며, 대규모의 개발이 있었던 곳은 많은 결과물이 있다. 반면 개발이 없는 곳은 발굴조사가 미미하게 이루어졌다. 중서군의 개발이 제일 많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북서군의 개발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앞서 살펴본 것을 종합·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경산지역의 인구는 초기(1)와 후기(4)가 가장 적다. 중기(3)가 가장 많으며, 전기(2)가 중간 정도이다. 최소인구가 33명, 최고인구가 2,423.91명으로 큰 차이가 있다. 초기(1)에서 전기(2)로 가면 10배 이상의 사람이 거주하지

만 전기(2)에서 중기(3)로 가면 약 4배 증가한다. 그러다가 후기(4)가 되면 약 40~50배로 급격하게 감소된다.

묘지의 수로 보면 상석이 있는 곳은 북서군·중서군·남서군 3곳으로 각각 6기·16기·3기이지만 묘지로 보면 북서군이 가장 많은 88기(시대 모름(0) 포함), 중서군이 54기(시대 모름(0) 포함), 그 밖의 군(群)들은 0~4기(시대 모름(0) 포함)이다.

결국 주거지·인구 와 묘지·상석 등으로 볼 때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중심은 북서군과 중서군 2곳이다. 이 중 북서군은 동쪽의 괴전동유적(9)에서 서쪽의 각산동혁신도시유적(5)까지 직선거리로 약 5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에서 남으로 뻗어 내린 산자락의 선상지 위에 있다. 그렇지만 중서군은 동쪽의 가야리유적(11)부터 서쪽의 매호동지석묘(17)까지 직선거리로 7km 내외에 분포되어 있으며, 남쪽의 산지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자락의 선상지 위에 있다.

북서군과 중서군의 인구수를 보면 시대 모름(0)을 제외하고는 중서군이 북서군보다 많으며,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전기(1)에는 비슷하지만 중기(3)와 후기(4)에는 중서군이 높다. 또 1가구 가구원에서 북서군보다 중서군이 시대 모름(0)을 제외하고는 모두 많다.

그렇지만 시대 모름(0)을 포함하여 보면 묘지에 묻힌 사람의 수는 북서군이 중서군보다 많은데, 전기(2)에는 중서군이, 중기(3)에는 북서군이 많이 매장된다. 또 상석은 북서군의 경우 전시기의 주거지 96기에 상석 6기로 주거지 16기 중 상석 1기이며, 중서군의 경우 전시기의 주거지 340기에 상석 16기로 주거지 21.25기 중 상석 1기이다. 이는 북서쪽이 상석을 옮기는 기술이 중서군 보다 우수했던지 기술이 동일하다면 북서군 외의 인력을 동원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북서군은 묘지와 주거지가 같은 유적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중서군은 묘지만 따로 있는 경우가 있다. 이로 보면 중서군은 주거지와 묘지가 같이 또는 분리되어 조성되었으며, 이는 묘지로 생각한 곳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상석은 묘지의 표시 또는 다른 상

징물로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면 북서군이 중서군보다 기술이나 인력 동원 능력이 높은 곳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에서 청동기시대 묘지 조성과 상식에 필요한 인력 등을 계상한 예는 없다. 외국의 사례로 보면 영국 웨섹스지방의 선사시대 장분 묘지 1기를 축조하는데 20명이 약 50일간 일한 것으로, 유적 하나를 축조하는데 드는 작업시간이 10만 시간이라고 할 때 250명이 40일간 작업해야 한다. 이런 사회를 부족사회 혹은 분절사회로 추정하였다.²⁶⁾

경산지역의 묘지를 볼 때 중기(3)의 인구는 중서군이 많지만 묘지는 북서군이 많다. 기술이 모두 비슷하다는 가정 아래에서 묘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동원하는 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동원된 인력은 경산지역으로 한정²⁷⁾해서 볼 때 중서군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북서군은 인구에 비해 묘지가 많다는 점, 중기(3)에는 묘지에 매장되는 사람이 중서군보다 많다는 점, 주거지와 상식의 비율을 보면 중심지는 북서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구에서는 중서군이 많지만 묘지와 상식 등을 가지고 보면 기술의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무력을 동원하거나 신성(神聖)을 가지고 제압하여야 한다. 경산지역에서 북서군이 가지는 것은 무력동원 능력이거나 신성이거나 아니면 둘 다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다.

그럼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전기(2)와 중기(3)의 사회는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해 분절(부족)사회(segmentary societies)는 총 인구수가 2~3천명이며, 주기적 의례행위, 정주마을에 건조물이 있어야 하며, 군장사회(chiefdom societies)는 총 인구수가 5천~2만명 이상이며, 세습 지도자의 친족계서(親族階序), 고위 전사 집단, 방호시설을 갖춘 중심지, 대규모 기념물 등이 있어야 한다.²⁸⁾ 이를 기준으로 보면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사회는

26) 이희준 옮김, 앞의 책, 2006, 202쪽.

27) 대구광역시 동구와 북구 등에 조사·보고된 유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는 서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경산지역으로 한정하였다.

28) 이희준 옮김, 앞의 책, 2006, 179~181쪽. 이는 원서의 기준이며, 이를 우리나라에

총 인구수·정주마을에 건조물 등으로 보면 분절사회로 보아도 무방하지만 묘지에 매장되는 사람의 수로 보면 계서(階序)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습되는 지도자 친족계서·고위전사 집단의 여부는 알 수 없으며, 방호 시설²⁹⁾을 가진 중심지와 대규모 기념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2)와 중기(3) 사회는 군장사회의 일부가 있는 분절사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청동기시대 초기(1)의 인구와 묘지 수가 없는 까닭에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화변동 등이 있었음을 보이는 결과이다. 또 후기(4)의 격감(激減)하는 인구는 철기문화가 들어오는 시기와 접하면서 있었던 사회변화 양상의 결과로 보인다. 그래서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이행(移行)되는 시기에는 주거지와 묘지 등을 조성할 수 있었지만 청동기시대에서 철기로 변화하는 과정에는 급변하는 문화 충격 등으로 주거지만 있고 묘지를 만들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경산지역 청동기시대에 대해 4개시기로 구분하여 인구변화·연평균 인구증가율·1가구 구성원·묘지 매장자 수 등을 알아보았다.

인구변화는 초기(1)가 작고 전기(2)에 늘어났다, 중기(3)가 되면 전성기를 보이다 후기(4)에 격감한다. 이렇게 초기(1)와 후기(4)의 인구가 작거나 줄어드는 이유는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이행(移行)하는 시기(초기:1)와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원삼국)으로 가는 과도기에 해당되기 시기(후기:4) 때문이다.

적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고고·역사학계에서 이에 대한 기준 또는 편차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9) 주거지 가장자리에 있는 해자(壕字)를 방호시설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방호시설은 막아 지켜서 호위(護衛)하는 시설로 본다면 성(城)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본고는 없다고 하였다.

전기(2)와 중기(3)의 안정적인 때에는 인구가 늘어나며, 주거지와 묘지 등이 많이 조성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인구변화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중기(3)의 북서군만 줄어드는 것이 이색적(異色的)이다. 다른 군집들은 경산지역의 평균 내외에서 또는 좀 더 높은 비율로 늘어나는데 비해 북서군은 전기(2)에 비해 줄어든다. 중기(3)에 북서군은 다른 집단과 달리 혼인(婚姻)과 이주(移住) 등의 인구증가 요인에 대한 제한이나 통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묘지의 수와 비교하여도 묘지를 조성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중서군보다 높은데서 알 수 있다.

1가구 구성원은 경산지역의 초기(1)와 후기(4)가 높은 편이고 전기(2)와 중기(3) 순으로 낮아진다. 이로 보아 신석기에서 청동기·청동기에서 철기로 변환되는 시점의 가구 구성원 수가 높으며,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변환되는 시기의 가족 구성원(4.71명~8.39명)보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는 시기의 가족 구성원(5.94명~7.99명)의 수가 많다. 이는 청동기로 변화할 때보다 철기로 전환될 때 가족의 수가 많으며, 변화에 대응할 때 가구 구성원이 많은 것이 유리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중기(3)의 다른 곳에 비해 중서군의 가구 구성원이 많은 것으로 보아 가구를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營爲)한 것으로 추정된다.

묘지 매장자의 수를 보면 전기(1)에는 북서군만 1기의 묘지가 있다가 전기(2)가 되면 북서군·중서군·남동군·남서군으로 확장된다. 주거지 수와 묘지수로 비교할 때 전기(2)는 중서군의 묘지 조성이 다른 곳에 비해 높지만, 중기(3)가 되면 주거지 수와 인구수 등과 묘지를 비교할 때 북서군이 제일 높다. 북서군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기(3)에 인구증가율이 가장 낮아 혼인과 이주 등에 제한이나 통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 상석의 수로 보아도 주거지수와 인구 등을 감안할 때 북서군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산지역에서 북서군이 차지하는 역할이 다른 곳에 비해 중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기(3)에는 경산지역에서 북서군의 묘지 비율이 가장 높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경산지역 청동기 시대의 1가구 구성원은 최소 3명~9명 내외이며, 최대인구는 경산지역 전체가 약 2,500명 이상, 중서군의 약 2,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 묘지와 상석 등을 조성하는데 동원된 인력 등으로 볼 때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사회는 군장사회의 성격이 일부 포함된 분절사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논문은 2018년 5월 9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6월 2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강봉원, 「인구압력과 전쟁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신라를 중심으로-」, 『신라문화』21, 2003.
- 강봉원, 「인구압력과 전쟁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신라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의 일 방향』, 학연문화사, 2008.
- 강봉원, 「한반도 청동기시대 마제석축의 무기적 기능에 관한 역사·고고학적 고찰」, 『선사와 고대』38, 한국고대학회, 2013.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신설구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음양리·사리·수성리·현내리·다산리-』, 2002.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하양 대학리·와촌 동강리 유적』, 2005.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慶山 新開里 聚落 遺蹟』, 2007.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慶山 山陽里 遺蹟』, 2009.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대구 신서혁신도시 B-3북구역 유적』, 2011.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대구 각산동 유적』, 2012.
- 김광명, 「청동기시대 묘제」, 『금호강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학연문화사, 2015.
- 김권구,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농경사회』, 학연문화사, 2005.
- 김권구, 「청동기시대 시지지역의 마을과 무덤」, 『고대마을, 시지』, 국립대구박물관, 2016.
- 김권구, 「의례와 사회」,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4. 분묘와 의례』, 서경문화사, 2017.
- 김권구·공민규,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3. 취락』, 서경문화사, 2014.
- 김병섭, 「영남지역」,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편년』, 서경문화사, 2016.
- 朴榮九, 「東海岸地域 靑銅器時代 무덤의 變遷」, 『韓國靑銅器學報』9, 한국청동기학회, 2011.
- 방선지, 「경북지역의 청동기시대 무덤 부장유물 연구」,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학연문화사, 2016.
- 배기동 역, 『고고학이론 입문』, 학연문화사, 1991. 원저; Patterson, Thomas. C., *The Theory and Practice of Archaeology A Workbook*, Prentic-Hall, Inc., 1983.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 삼한문화재연구원, 『慶山 慶里 440-5番地 遺蹟』, 2012a.
- 삼한문화재연구원, 『慶山 佳野里 376-1番地 遺蹟』, 2012b.
- 성립문화재연구원, 『慶山 中山洞 160-1番地 遺蹟』, 2011.
- 손준호, 「石器 組成比를 통해 본 靑銅器時代 生計와 社會經濟」, 『韓國靑銅器學報』3, 한국청동기학회, 2008.
- 손준호, 「도구의 사용과 생계」, 『청동기시대의 고고학5. 도구론』, 서경문화사, 2014.
- 신영애, 「청동기시대 무덤 연구성과 검토」,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학연문화사, 2016.
- 안승모·이준정, 「DNA분석을 통해 본 구대륙의 곡물과 가축의 기원」, 『선사농경 연구의 새로운 동향』, 사회평론, 2009.
- 안재호 외,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편년』, 서경문화사, 2016.
- 영남대학교박물관, 『시지의 문화 유적』 I, 1999.
- 영남대학교박물관, 『대구 괴전동 유적』, 2004a.
- 영남대학교박물관, 『대구 옥수동 생활유적』, 2004b.
-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동내동 유적』, 2002.
- 영남문화재연구원, 『慶山 三省里 665番地 遺蹟』, 2003.
-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가천동 유적』, 2004a.
-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시지동 60-1번지 유적』, 2004b.
-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옥수동 128번지 생활유적』, 2004c.
-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옥수동 134번지 유적』, 2004d.
- 영남문화재연구원, 『慶山 佳野里 遺蹟』, 2005a.
- 영남문화재연구원, 『慶山 麻谷里 遺蹟』, 2005b.
-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 구간 내 慶山 三省里 遺蹟』, 2005c.
-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사월동 400번지 유적』, 2006.
-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매호동 1008번지 유적』, 2009.
- 영남문화재연구원, 『慶山 西部里 451番地 遺蹟』, 2011a.
- 영남문화재연구원, 『慶山 玉山洞 300番地 遺蹟』, 2011b.
- 유병록, 「석기의 종류와 특징」,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5. 도구론』, 서경문화사,

2014.

- 유병복, 「대구지역 신천일대의 주거와 취락」, 『영남문화재연구원』28, 영남문화재연구원, 2015.
- 유지환, 「대구 진천천일대 청동기시대 취락의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78, 한국상고사학회, 2012.
- 윤호필, 「靑銅器時代 墓域支石墓에 관한 研究」, 『경남연구』1, 경남발전연구원, 2009.
- 윤호필, 「청동기시대 지식묘의 축조배경과 상징성」, 『韓國靑銅器學報』21, 한국청동기학회, 2017a.
- 윤호필, 「지식묘의 장송 의례」,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4. 분묘와 의례』, 서경문화사, 2017b.
- 이석범, 「磨製石鏃을 통한 嶺南地域住居址의 編年」, 『韓國靑銅器學報』10, 한국청동기학회, 2012.
- 이성주, 「경북지역의 청동기시대 분묘와 부장품」,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학연문화사, 2016.
- 이수정, 「청동기시대 주거 변화에 대한 연구」, 『영남문화재연구원』28, 영남문화재연구원, 2015.
- 이영문, 「분묘와 사회」,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4. 분묘와 의례』, 서경문화사, 2017.
- 이청규, 「청동기와 사회」,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5. 도구론』, 서경문화사, 2014.
- 이형원, 「남한지역 병행관계」,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편년』, 서경문화사, 2016.
- 이희준, 「대구 지역 古代 政治體의 형성과 변천」, 『영남고고학』26, 영남고고학회, 2000.
- 이희준, 「경산 지역 고대 정치체의 성립과 변천」, 『영남고고학』34, 영남고고학회, 2004.
- 이희준 옮김, 『현대 고고학의 이해』, (주)사회평론, 2006. 원저; Renfrew, Colin & Bahn, Paul., *Archaeology -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4th edition, Thames & Hudson ltd., 2004.
- 조미애,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배치양상」,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학연문화사, 2016.

- 천선행, 「토기의 종류와 특징」,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5. 도구론』, 서경문화사, 2014.
- 하진호, 「청동기시대 촌락의 형성과 발전」, 『금호강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학연문화사, 2015.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산 옥산동 29번지 건물신축 부지 내 유적』, 2008.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慶山 玉谷洞 遺蹟』 I ~IV, 2009.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대구 신서동 유적』 I ~V, 2012.
- 한국문화재재단, 『2014 소규모 발굴조사보고서Ⅷ』 대구·경북1, 2016.
- 한빛문화재연구원, 『慶山 內里里 遺蹟』, 2011.
- 황창한,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석제무기」, 『韓國青銅器學報』13, 한국청동기학회, 2013.
- Chamberlain, Andrew., *Demography in Archaeology*, Cambridge Manuals in Archa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Hassan, Fekri. A., *Demographic Archaeology,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1., 1978.

Abstract

A Study on the Population's Transition by the Dwelling and the Graveyard at Bronze Age in *Gyeongsan*(慶山) Area

Jung, Sang-soo

Bhang, Sun-ji

We do a classification the 6th-group at bronze age in *Gyeongsan* (慶山) area and the population of 4-period at bronze age calculate on the number of hearth and the dwelling floor space. We search the outcome for the population 4-period, the estimation of the annual rate of population growth,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compared the household and the population to the graveyard.

The result of this method, the population is of a small size at the time of culture change-period such as the early and the late period on 1 graveyard or none. However the stable period - the former and the middle period - the population is on the increase and in particular the middle period it is the numerous of about 2,500 persons.

In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early and the late period is the higher than the former and the middle period, anyway in the middle period the most much population's site is a higher. We estimate to live through the household.

In case of the middle period at north-west group of population dwindle away into a smaller than the other sites but the group go on

increasing in graveyard. The north-west group on the middle period show the estimation of the annual rate of population growth to the other group and it is control to marriage or migration.

key words

Gyeongsan(慶山) area, dwelling, graveyard, the estimation of the annual rate of population growth, household